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2, FAX: (02)783-0073

가을초원 수놓는 골프향연

11월 9일 동부산CC서

동창회장배 쟁탈 제4회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1월 9일 경남 양산 근교 동부산CC에서 55개조 220명의 골퍼들이 출전한 가운데 열린다.
본부동창회(회장 조대제·7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기별대항 단체전과 뉴페리어방식의 개인전, 제1~9회의 노장들이 겨루는 시니어부 등으로 나눠 치른다. 단체전은 동기회별 출전자 중 베스트 스코어 3명의 성적을 합산해 우수·준우수·3위를 결정.

제4회 대회 참가신청 쇄도
기별전·개인전·시니어전
55개조 220명 "대성황" 예약
각각 트로피를 수여한다.
개인전 경우 우수·메달리스트·준우수·3위·4위·5위·행운 3명·니어핀·롱게스트를 뽑는다(우수·메달리스트·준우수자에게 트로피).
또 시니어부는 우수·메달리스트·준우수로 가려 각각 트로

피를 수여한다.
이날 오전 10시40분 시구식과 기념촬영에 이어 8시부터 힐코스·레이크코스·벨리코스(3곳)에서 1조부터 티업, 라운딩을 벌인다. 각 조의 간격시간은 6~7분이며, 마지막조 마치는 시간은 5시경으로 예상된다.
오후 6시30분으로 예정하고 있는 폐회식은 △입상자 시상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전달 △단체회 △행운상(3명) 추첨 등 순으로 치러진다.

개인대항바둑대회

11월 25일 개막

본부 용마바둑회장배 쟁탈 최강부, 일반A·B·C, 노년부 5개 부별 토너먼트 총호선
본부동창회는 지난 초여름 대성황리에 열렸던 제1회 동창회장기 쟁탈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가 각 동기회별 '바둑열풍'을 불러 일으킨 기폭제 역할을 한 데 힘입어 가을맞이 개인대항전을 펼쳐 '용마패왕(龍馬霸王)'을 탄생시키기로 했다.
본부동창회(회장 조대제·7회)는 용마바둑회 주관 제1회 개인대항 용마바둑대회를 오는 11월 25일 오전 9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

센터에서 개최, 용마가족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바둑붐을 확산, 이 지력을 조직 활성화에 직결시킬 계획이다.
용마바둑회장배 쟁탈전인 이번 개인대항바둑대회는 △최강부(아마 4단 이상) △일반A부(아마1단~3단) △일반B부(아마 1급~3급) △일반C부(아마 4급 이하) △노년부(1~10회) 등 5개 파트로 나눠 치러지고, 우수·준우수·3위를 각각 가려낸다. 각 부별 참가자는 동기회별 3명이내이다.
각 부별 대국은 '토너먼트-총호선-덤6집반(노년부는 치수제)'이며, 대국 개시 후 50분이 경과하자마자 30초 초읽기를 3회 실시한다. 특히 대국 개시 후 10분이 지

나도 불참하면 '기권패'로 처리한다.
출전희망자는 오는 11월 10일(토요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문의는 △중앙바둑센터(051-466-6818) △바둑회장(한병조 HP017-840-4119) △바둑회 총무(임강택 HP 011-833-5479, 백승이 HP 011-848-5240) △본부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 등으로 하면 된다.

22-31회 · 27-29회 · 33-39회 · 41-44회

준결행 티켓 놓고 각축

기별야구대회 종반전에
본부동창회 주최 제33회 기별대항야구대회 4강행 티켓을 놓고 제22-31회, 제27-29회, 제33-39회, 제41-44회가 오는 10월27일(토요일) 경남고 야구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다.
지난 10월 21일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제29회는 부전승으로 올라온 제30회를 14-10으로, 제41회는 제34회를 10-8로, 제33회는 제40회를 27-2로 각각 물리치고 8강전에 올랐다.
▶관련기사 8면

전날 20일 경남고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제31회는 제28회를 13-9로, 제27회는 제32회를 13-8로 각각 제압했다.
또 같은 날 경남중에서 제39회는 부전승으로 올라온 제37회를 13-12로, 제44회(부전승)는 제46회를 14-6으로 각각 꺾고 8강에 합류했다.
한편 제22회는 1차전과 16강전을 모두 부전승으로 올라와 8강전을 펼치게 돼 대회 최대 행운아로 부상했다.

김판규(16회) 육군참모총장 취임

동창회 사상 첫 영예

60년 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참모총장이 탄생해 국내외 용마가족에게 더욱 굳건한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김판규 동문(16회·사진)은 육군 제1군사령관 재임 중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진, 지난 10월 11일 계룡대에서 동기생을 비롯한 수많은 동문들의 축하 속에 취임식을 가졌다.
육사 24기 출신인 김 동문은 전술지식이 해박하고 교리에 능통

한 입체교육 기동전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소탈한 성격인 김 동문은 부대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매우 중시하는 장군으로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교육훈련 부실 △부조리 △안전불감증의 뿌리를 뽑는 데 역점을 둔 4금(禁)을 생활화했다.
김 동문은 육본 인사참모부 관리처장·55사단장·육군대학 총장·6군단장·초대 항공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동창회장배 제4회 龍馬골프대회

2001년 11월 9일(금) 08:00 동부산C.C.

회장 조대제(7회) 협성개발(주) 대표이사	박보국(12회) (주)은성사 대표이사	박재우(19회) 조양상선(주) 부회장	윤정환(27회) 서진섬유(주) 대표이사
부회장 문국(8회)	이상택(13회) 효산의료재단 안양병원 이사장	이용홍(19회)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양길용(29회) 동남야해운(주) 대표이사
박동렬(8회) 해운대 성심병원 원장	한병조(13회) 부일합동법무사 대표	최장하(20회) 최요한성형의과의원 원장	최거훈(30회) 법무법인 천지 변호사
박학복(9회) 신생의원 원장	박병선(14회) 신흥모직공업(주) 대표이사	최민석(21회) 유원산업(주) 회장	권중수(31회) (주)부산벼룩시장 대표이사
정행권(9회) 부산가스개발(주) 대표이사	신준호(14회) 롯데홈·우유(주) 부회장	최재권(21회) (주)드림에버타이징 대표이사	최동식(31회) (주)동방인쇄 대표이사
강진평(10회) 부광산업(주) 대표이사	한규환(14회) 부산정보대학 교수	박재삼(22회) 천일여객(주) 대표이사	박명진(33회) (주)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
오강욱(10회) 남산곡산(주) 대표이사	오봉식(15회) (주)동일건축 대표이사	유재진(22회) 유창석유공업(주) 회장	감사
김인호(11회) (주)호천상사 고문	한해수(15회) 고려단체과 대표	박기욱(23회) 삼오정 대표	방봉우(10회) 이원회계법인 대표
안강태(11회) 대선조선(주) 대표이사	송규정(16회) (주)윈스틸 대표이사	서영수(23회) 임페리얼빌딩 대표	박철병(23회) 성도회계법인 대표
오원수(11회) (주)대한제강 회장	양성민(16회) (주)조광페인트 대표이사	서정대(24회) (주)중앙실업 대표이사	김태우(27회) 법무법인 국제 대표변호사
김수현(12회) (주)대동벽지 대표이사	김대성(17회) 경성대학교 총장	최중식(24회) 최중식법률사무소 변호사	본부사무국
김광일(12회) 법무법인 충성 대표변호사	최만식(17회) 대한스위스화학 회장	김진철(25회) (주)디에스아이 대표이사	사무국장 최후호(11회)
	김길제(18회) (주)MSC 대표이사	서병수(25회) 부산시 해운대구청 청장	회보담당이사 김형석(16회)
	김길출(18회) 한국주철관공업(주) 대표이사	강인백(26회) 동흥실업 대표	총무 김병수(22회)
	남진현(19회) Coleman 대표	최강호(26회) 진영수산(주) 피자사업부	

시평



조정문 제38회 경남고 야구부장

용마가족 빅 이벤트인 동창회 장기 쟁탈 제33회 기별대항야구 대회가 오는 11월 3일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그 옛날 학창시절로 문득 되돌아왔지만, 몸은 뒤뚱거리고 공은 가물가물거리려 폭소를 쏟기도 한다. 또 예기치 않던 장타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향수 짙게 배인 모교 운동장에서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후배는 선배를 따르고 존경하는 축제로 승화되고 있다.

폼잡고 내려 꽂은 공이 포수 미트에 정통으로 박힐 때의 만족감은 비길 데가 없다. 노려친 공이 멀리멀리 날아갈 때의 해방감은 대단하다. 비록 내야 땅볼이라도 최선을 다해 뛰는 동문들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고, 응원하는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한 동문은 자신이 그렇

게도 입어보고 싶었던 야구 유니폼을 이제야 갖춰 입고, 모교 운동장에서 던지고, 치고, 달려보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단다. '야구가 하고 싶으니 야구부에 넣어달라'는 말도 꺼내보지 못한 채 지나친 학창시절의 추억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마치 '사랑한다' 고백하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안타까운 첫사랑의 그녀 모습에 비유될 만큼 야구

를 그리워했다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경기 사이사이 동문들과 가족들은 삼삼오오 구덕산의 숲 속을 거닐다가 도토리묵에 막걸리한 사발 놓고 옛 추억에 젖어 시간가는 줄 몰랐고, 넉넉한 모교 교정의 가을풍경과 만추의 뒷산 정취에 취하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행사는 더욱 풍성하다.

량을 절절이 느꼈기에 이 기회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비록 올해 화랑대기 우승에 만족해야 했던 모교 야구부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많은 유망선수들이 모교를 선택해 향후 큰 발전이 기대된다는 점을 전해드린다.

누가 뭐래도 우리 용마인의 구심은 야구가 아니던가. 어느

'용마야구' 햇불 밝히자

축제 중 검붉게 탄 얼굴은 이제 곧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지만, 추억의 교정에서 선-후배간 어울려 한판 신나게 보낸 즐거웠던 기억만큼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 전보다 더 모교를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빌어본다.

필자가 모교 야구부장을 수년간 맡으면서 선-후배 여러분의 모교 야구부에 대한 관심과 사

해를 막론하고, 야구가 승승장구하던 해는 진학률도 같은 비율로 좋았고, 침체기에 들어서면, 우리들의 마음도 따라서 안타까웠던 모교 야구부에게 그 사명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이제 우리 선-후배 동문들과 재학생 모두는 '용마정신'을 다시 일깨워 저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자. 그리하여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한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와 국가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갖자.

오랫동안 묻어둔 얘기들 '술술'

제8회재경회 월례회 · 골프 · 바둑대회

제8회재경동기회(일명 재경경팔회)는 지난 10월 8일 낮 12시30분 서울 청진동 '홍진옥'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전영배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서 동문들은 점심식사에 결집한 반주를 나누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마음에 담아뒀던 '살아온 이야기들'을 실타래 풀듯 푸는 등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젖었다.

골프우승 김영기 · 이정자씨

골프모임인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지난 10월 11일 경기 안성 CC에서 제105회 월례회를 개최했다(24명 참석). 이날 라운딩에서 남자부는 우승 김영기(83타-5) · 준우승 문창화 · 3등 정진수 · 행운상 김태규 동문이, 여자부는 우승 이정자 · 준우승 김정화 · 행운상 전은희 씨가 각각 차지했다. 제106회 대회는 11월 1일 같은 장소서 개최 예정.

팔선회 바둑우승 이유환

바둑모임인 팔선회(회장 이유환) 10월 정례회가 지난 10월 6일 오후 2시 일품기원서 열려 우승 이유환 · 준우승 이종주 동문이 차지했다. 참석자는 이 회장을 비롯, 신현주 배주원 김진석 이종근 전영배 강성태 손대근 이종수 이창근 동문 등(도착순). 11월 3일 같은 장소서 11월 정례회 예정.

부산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는 단합회

제10회재경동기회 9~10월 활동 왕성

제10회재경동기회 각 클럽들이 10월에도 뜨거운 정을 나누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의도화요회는 지난 16일 낮 12시 '옛골'에서, 안산화요회는 9일 낮 12시 안산중앙역 '다릿목추어탕집'에서, 강북화요회는 4일 낮 12시 중앙극장 옆 '평래옥'에서 각각 모임을 가졌다.

단풍 불타는 보경사에서 야유회

제8회 부인동반 34명 '가을보약' 전어회잔치

제8회동기회는 지난 10월 19일 경북 포항 근교 보경사에서 부부동반 가을 야유회를 벌였다.

김정곤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서 동문 22명과 부인 12명 등 모두 34명은 한데 어울

려 12폭포까지 왕복산행을 한 후 단합회를 열었다.

일행은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암에 들러 '가을보약'이라는 전어회와 아나고회 등으로 뒤풀이를 즐겼다.

한편 강북화요회는 지난 9월 4일 부산에서 온 김기훈 동문 등 4명을 비롯, 28명이 모인 가운데 단합회를 열었다. 이윤수 동문이 스폰서가 돼 크게 기여했고 손정 동문이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또 같은 달 11일에는 안산화요회(5명 참석 · 스폰서 김기문 회장)가, 18일에는 여의도화요회(4명 참석 · 4명 모두 통영출신이라 '통영향우회'가 됐음)가 각각 모임을 가졌고, 23일에는 사니조아회(6명 참석)가 등산을 했다.

LA지역 홈페이지 운영

www.kyungnamla.com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회장 천병규 · 21회)는 최근 홈페이지 www.kyungnamla.com을 구축, 국내외 동창사회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남가주회의 홈페이지는 △모교와 동창회 소개 △동창회 운영 △동문명부 △팬클럽 △자유게시판 △동문 동정 △방명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관개관 6주년 기념 제15회동기회, 자축회

제15회동기회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동창회관이 있는 골든오피스텔 6층 동기회관에서 손부홍 회관운영위원장 등 동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6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 열었다(관련사진 4면).

이날 행사는 손부홍 위원장 인사와 정창환 동기회장 및 김학현 모교운영위원장 축사, 조일량 회관실장 운영보고, 축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근처 구포집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축하연을 열었고 회관출범을 위해 크게 기여했던 손부홍 위원장과 한해수 전 회관설립추진위원장이 각각 쾌척한 특찬금(각 30만원 · 20만원)으로 뒤풀이를 마무리했다.

장산 · 금정산에서 부부동반 '금슬' 확인

제15회동기회 일오산우회 제189차 산행대회가 지난 9월 16일 금정산에서 장종호 회장 부부를 비롯, 21명(동문 13명 · 부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일행은 강민조 산행대장이 산행 후 쾌척한 특찬금으로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즐겼다.

한편 제188차 산행대회는 지난 8월 19일 장종호 회장 부부를 비롯, 부인동반 20명(동문 15명 · 부인 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운대 장산에서 열렸다.

일행은 산행 후 '너른마당'에서 회식을,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했다. 특히 김정길 산행대장은 자신의 승용차로 일행을 목욕탕으로, 식당으로 수송하느라 애를 썼고 금일봉(10만원)까지 협찬했으며, 김경일 김장길 이기준 동문도 특찬금을 쾌척해 뒤풀이를 즐겁게 했다.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3회동기회 임원 명단

총동창회 부회장 이상택 한병조

고문

김상한 변종길 손재우 송문일 이법경 이철세 오원수 이성민 장 청 최병연 한병조 허갑도 총창수 정문화 정철기

회장 김향운

수석부회장 박영충

부회장

강귀동 강정문 고승구 공한국 구창덕 권영채 김 청 김치득 김한규 김홍철 남영기 박계부 박종탁 박주열 박건일 안준수 오한수 이천석 정상영 제병민 조달근 차영일 최영재

이사

강수민 강종원 권오덕 권순길 김 일 김간웅 김말남 김무조 김부조 김상치 김소웅 김수일 김승언 김영길 김영길(송정) 김초삼 김장웅 김윤홍 김정성 김정일 김정태 김춘길 김태웅 김학대 문 창 문형재 문기찬 박홍일 박두만 박경오 박민보 박안호 박진태 박홍표 배대결

배영봉 백명조 백원호 송영석 송창식 신하근 안성문 안수웅 안종일 오상찬 옥종한 유수중 윤진규 이경준 이규채 이민부 이영현 이용웅 이일희 이종달 이종두 이종영 이태량 임용수 장미추 장 영 장병길 장영길 정덕치 정연호 정영일 정영화 정은섭 정진화 조용갑 조원석 최영환 최성욱

감사

김신부 신민철

총무

문현길(011-9530-8974) 장위추(011-9518-0754)

재경동기회 회장

김정재 재경동기회 총무 허 훈(011-9054-5539)

기별 경부합동잔치 풍성

가족동반 등산 · 은사초빙 반찬회 · 바둑대회 열어

동기회별 부산-서울 가족동반 합동잔치가 여기저기서 열려 질어가는 가을을 수놓았다. 최근 제14회동기회는 등산대회를, 제15회동기회는 은사초빙 반찬회를 비롯, 바둑대회와 등산대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또 제21회동기회는 충북 영동 근교 백화산에서 산행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조트 선녀마을에 재집결한 후 늦은 점심식사를 했다. 조대무 부산등산회 총무가 사회를 맡은 선녀마을에서의 합동단합회는 경부동기회장 및 산우회장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고 오후 6시50분에 헤어졌다.

한국기원 중부지원(옛 명인포럼)에서 서울기우회(회장 이승우) 주최로 경부합동친선바둑대회를 벌였다. 이날 대국에는 부산 기우회(회장 이추남)에서 대표기사(?) 5~6명이 참석했고, 22일 대국 전야제에서 서울-부산 동문들이 회포를 풀었다.



적장산 등산을 한 제14회 동문가족들이 무주리조트 선녀마을에서 단합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15회동기회

서울서 '경부패왕' 선발

바둑을 좋아하는 서울-부산 동문들은 10월 22일~23일 북창동

부인 동반 70명 계룡산에

보름산우회(회장 박철양) 초청 경부합동산행대회가 10월 20~21

제14회동기회

100여명 무주 적장산에

제14회동기회 부산-서울 용마가족 100여명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던 지난 10월 21일 무주 적장산에서 경부합동등산대회를 열었다. 부산의 한규환 회장과 서울의 조규향 회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행사에서 일행은 박진 서울등산회장과 최충락 부산등산회장의 공동 리드로 산마를 서창에서 발품을 팔아 최영 장군이 칼을 뽑았다는 장도바위를 거쳐 향로봉(1,034m) 정상에 올랐고, 무주리



아직도 정정한 양응주 은사님(가운데)을 둘러싼 3-8회 제자들의 환한 모습.

제21회동기회

"영동 백화산에 모여라"

제21회경동동기회 주관 서울-부산 부부동반 합동등산대회가 오는 10월 28일 충북 영동근교 백화산 포성봉(933m)에서 열린다. 행사 참가자는 이날 오전 7시 지하철 양제역 7번 출구 스포타입 앞에 대기중인 버스편으로 출발한다. 행사는 △등산팀 △트레킹팀 △산림욕팀 등으로 나뉘어 실시하고, 등산용 상의를 선물하며, 등산대회 후 단합회를 연다.

은사 초빙 3-8회 열어

3-8회 경부합동반찬회가 10월 6~7일 양응주 은사님을 모신 가운데 대전 유성의 전야제와 뒷날 계룡산~갑사 등산 이벤트로 열렸다. 재경 3-8회(회장 강부부)가 부산 3-8회 회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올해 75세인 양응

당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제영성 동기회장과 이상화 기우회장 등 동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국에서 우승은 장승엽, 준우승은 이명철 동문이 차지했

다. 대회가 끝난 후 회식자리에서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8시에 정기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바둑에 취미가 있는 동문들을 결집시키기로 결의했다.

직능별 클럽 행사 적극 추진 제25회, 활성화 촉진

제25회동기회(회장 제영성)는 최근 기독교인 모임인 신우회를 결성하고 바둑과 낚시대회 등을 열어 동문 유대 강화와 조직 활성화 촉진을 꾀하고 있다.

신우회 결성...회장 김종만 11월 13일 창립기념예배

기독교 동문 10여명은 지난 10월 11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림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신우회'를 결성, 초대회장에 김종만 동문(현대자동차 동래지점장)을, 총무에 전섭태 동문(세계순해사정 대표)을 각각 선임했다. 신우회는 앞으로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창립기념예배를 오는 11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낚시대회 우승 최재환 잡고기 설치 대어 '行'

동기회 주최 낚시회 주관 동문 친선낚시대회가 지난 10월 7일 가덕도 중갈매도에서 열렸다. 제영성 동기회장과 신성기 낚시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제일 많이 낚은 최재환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잡고기가 너무 설치 조사들은 목표어종을 구경하지 못해 무척 아쉬워했다.

바둑대회 우승 장승엽 매월 둘째 토요일 대국

기우회 주관 바둑대회가 지난 9월 9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

▷가람회(회장 김승일) : 지난 10월 17일 오후 7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죽마고우(연극인 김희장 운영)'에서 월례회.

정창환 동기회장과 조일량 동기회관실장 참석, 금일봉 전달, 격려.

▷화친회(회장 김관열) : 지난 10월 9일 온천장 '소도'에서 월례회(박찬호 동문 등 11명 참석).

한편 9월 월례회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 김승일 동문이 운영하는 '죽마고우'에서 임병철 동문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제15회 직능·지역회 활동

▷3-6회(회장 임상택) : 지난 10월 6일 양남공원에서 담임선생님이었던 고손동인 선생님의 시비를 돌보며 10월 월례회 개최.

▷사하회(회장 김창구) : 지난 9월 25일 오후 7시 괴정동 '동백숯불갈비집'에서 제39차 월례회(손부홍 동문 등 14명 참석). 특히 김창구 회장의 특찬금과 장운석 회원이 기증한 양주 한 병이 즐거운 뒷풀이에 크게 기여.

▷정창환 동기회장은 강무상 총

무·강민조·김정환 동문 등과 함께 지난 9월 15일 오전 경남 창원군 고암면 계팔리에서 열린 김대영 동문의 증조부인 애국지사 간쑤 김희봉 선생(99년 8월 15일 제54주년 광복절에서 대통령표창장 받음)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 제막식 기념 테이프 끊음.

▷이화회(회장 이추남) :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 부곡동 '죽마고우'에서 월례회(강부남 동문 등 11명 참석).

정창환 동기회장과 조일량 동기회관 실장이 참석, 금일봉 전달, 격려.

제15회동기회 임원명단

회 장 정창환	정창환 조영일 최 욱 한해수	동기회관 운영실장 조일량	이종희 이 준 이창일 이철성 임상택 임병철 임영길 장운석 정강홍 정영선 정옥중 주운탁 최광웅 최무길 최원수 하영수 황춘식 허두영 허진석 홍상석
본부부회장 오봉석 한해수	부회장 김승일 김중광 김창구 김관열 이추남 장중호 조규중 최병우	감 사 김기평 윤상준	총 무 강무상 김관열 조일량
본부이사 김관열 명호근 이재원 정기문 정창환	동기회관 운영위원장 손부홍	이 사 강민조 강부남 강창일 고태연 고병열 김광홍 김길홍 김삼차 김영훈 김완식 김옥규 김정길 김종태 김준근 김춘상 박소남 박재준 박종석 배 박 손방현 안경숙 오세창 유경수 유병용 유승덕 이강남 이기준 이기철 이인규 이종수	
자문위원 강재모 구형우 김삼용 김중광 김학현 손부홍 손재형 신희규 안충용 이은수 이종명 전동석 정기문 정수방 정준수	동기회관 운영위원 권승부 김경일 김명배 김양정 박찬호 신철호 이동근 이승남 장수웅 장중호		

< 동기회사무실 >
주 소 : 부산 중구 중앙동4가 52-3
골든O/T 610호
전 화 : 051-244-5515

유홍수(11회)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장



유홍수 동문(11회·국회의원·사진)은 지난 10월 19일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장에 취임했다.

유 동문의 이번 선임은 '중앙당의 내년 지방선거·대선 대비에 따른 일선 지부장 중진급 포진 방침'을 반영한 첫 케이스이다.

4선의원인 유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치안본부장 대통령령정무2수석비서관 충남도지사 내무부차관 등을 역임했다.

이갑현(20회)
국제해양환경보호회의 대표로



이갑현 동문(20회·협성검정 상무이사·사진)은 지난 9월 5~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해양환경보호 워크샵에서 '해양 유류오염분야'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부경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 동문은 이번 국제회의에 유엔의 IMO(국제해사기구)·GEF(지구환경금융)·PEMSEA(동아시아 해양환경보호기구)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된 것.

이주성(22회)
부산지방국세청장 발탁



이주성 동문(22회·사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재임 중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발탁됐다.

동아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이 동문은 거창과 마산세무서장, 국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을 거쳤다.

손성호(24회)
1회 매경비트학술상 수상



손성호 동문(24회·동아대 교수·사진)은 지난 9월 27일 제1회 매경비트학술상을 수상했다.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 겸 재무처장을 맡고 있는 손 동문(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은 매일경제신문과 조현정학술재단이 공동주최한 제1회 매경비트학술상 공모전에서 'S/W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 결정 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최우수작으로 뽑혀 이 같이 학술상을 받았다.

노기태(20회) 부산시 정무부시장

노기태 동문(20회·사진)은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 재임 중 최근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발탁됐다.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발판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게끔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이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부임한 노 동문은 1년 남짓 다가온 부산아시안게임 준비 등 갖가지 현안을 해결하게 위해 국회 및 시의회와 중앙정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퍼겠다고 말했다.

노 동문은 내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적 홍보망을 구축하고, 월드컵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에 대비해 '문화시민' '질서사회' 정착 운동에 앞장서며, 공직사회-시민사회 유대강화·지방정부 분권화실현·지방정부-당정 간 협력체계 강화 등에 심혈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노 동문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한나라당 경남 창원)돼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당 정책자문위원을 맡아왔다.

클로즈업

정치인 선배와 정통 공무원인 후배가 나란히 부산시 정무·행정부시장으로 발탁돼 화제다. 최근 취임한 부산시 정무부시장 노기태 동문(20회)과 행정부시장 오

선·후배 나란히 정무·행정부시장에

거돈 동문(21회)이 주인공.

이들은 안상영 시장을 적극 보필하는 '쌍두마차체제' 구축으로 부산시의 발전 가속화가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

오거돈(21회) 부산시 행정부시장



오거돈 동문(21회·사진)은 부산시 정무부시장 재임 중 지난 10월 5일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했다.

"내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경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이 참가하게끔 최선을 다해 '민족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며 시정의 통합 관리기능 강화에 심혈을 쏟겠습니다."

현황과악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 동문은 부산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AG 이전에 지하철 2호선 및 광안대로 개통·김해공항 국제선 확충 △항만 개발과 물류시설 유치 극대화 △부산항만공사(PA) 조기 설립 △부산신항건설·배후복합물류단지 조기 조성 △일자리 만들기·영상산업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진흥 △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오 동문은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뒤 내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부산시 내무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인에서 시인으로...이수천(19회) 첫 시집 발간 '때로는 구름이고 싶다'

한때 정계(政界)에서 '차세대 유망주'로 떠올랐던 이수천 동문(19회)이 시인으로 변신, 최근 첫 시집 '때로는 구름이고 싶다'를 펴냈다.

이 동문의 이번 처녀시집에는 1부 '연이 올 때', 2부 '행로', 3부 '오동나무 추억', 4부 '바람 되거라' 등 87편의 시가 저마다 아름다운 빛깔로 채색되어 있다.

시인이자 서울대 교수인 오세영씨는 '이수천의 시'에 대해 '이수천의 시는 진솔하면서도 순결하다. 기교도 없고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늘어놓는 현혹성도 없다. 자연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가 평소 생각해오고 느낀 바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술회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와 시학'으로 등단한 이 동문은 이번 시집을 펴낸 것에 대해 머리말을 통해 "더 잊어버리기 전에, 더 게을러지기 전에, 더 매마르기 전에 한줄씩 읊조리면서 사십 년 전에 버렸던 어린 꿈을 새롭게 살리고 싶어진다"고 술회

구름도 어둠도 날려 보내는 풍실물란 바람 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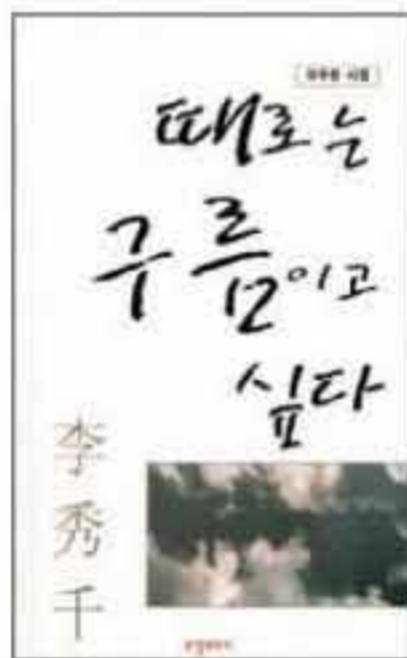
... 중략

죄와 한 씻어주는 흥풍이 되어주고 돈과 감투 날리는 정풍(淸風)이 되거라

더 큰 권세 만나거든 민풍(民風)이 되거라

천리 창공에 맑은 빛 만나 흥풍이 되고 굽은 소나무 부르며 송바람 되거라

- '바람 되거라'의 일부 -



한다. 현재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인 이 동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정계에 입문, 민정당 부산시지부 사무처장·국회의원 출마·한국장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고 저서로는 '민풍을 나눌시다' 등이 있다.



제15회동기회 회관개관 6주년기념 자축회, 정창환 동기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동문들의 박수 속에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관련기사 2면).

아직도 식지 않은 '홈커밍' 열정

제15회동기회 10월 정례회에 50여명 참석

제15회동기회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관광호텔 '용마홀'에서 월례회를 열고 지난 봄에 치른 '홈커밍데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정창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지난 5월 12일 치른 졸업4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 이후 처음 열렸음인지 50여 명이나 참석, 성황을 이뤘다.

사회를 맡은 김관열 총무의 업무보고에 이어 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봄에 열린 홈커밍데이행사가 성공을 거둔 것은 동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 결과로 감사의 뜻을 다시 전한다"고 말했다.

일행은 2부 여흥을 통해 끈끈한 정이 담긴 술잔을 나누면서 회포를 풀었다.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기우회를 동창회발전 기수로”

김해지역, 바둑동우회 창립기념 대회·월례회 열어

초대기우회장 권복술(16회)
 지문위원장에 최태환(13회)
 제1회 바둑대회 우승
 정용호·최호영·김재호



김해지역동창회 바둑동우회 창립기념 바둑대회. 화합과 결속의 축진제가 될 바둑대회에서 동문들이 진진하게 수업을 나누고 있다.

김해지역동창회는 바둑을 사랑하는 동문들로 '기우회'를 결성, 창립기념대회를 열어 동문-가족 유대강화와 조직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선언했다.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10월 13일 오후 3시 경남 김해시 서상동 김해라이온스클럽회관에서 정례회에 앞서 박세갑 회장(15회)의 주재로 '김해지역바둑동우회'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회장으로 권복술 동문(16회·명문약국 대표)을, 지문위원장으로 최태환 동문(13회·직전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박세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김해지역동창회는 어느 지역회보다 앞서서 역량을 과시하는 동창회로 발전하는 데 바둑동우회가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복술 바둑동우회 초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바둑동우회는 취미생활을 통해 응집된 저력을 동창회 발전에 직결시켜 나가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환 지문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늦은 감이 있는 바둑동우회의 출범은 우리 지역회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바둑동우회 창립기념대회는 3시간에 걸쳐 치열한 반상대

결을 벌여 고급인 A조에서는 우승 정용호(20회)·준우승 박석만(4회), 중급인 B조에서는 우승 최호영(32회)·준우승 김영출(28회), 저급인 C조에서는 우승 김재호(36회)·준우승 이광희 동문(30회)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바둑대회 시상식에 이어 오후 6시 대국장 근처 '대청마루'에서 열린 월례회에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우정을 다졌다.

용 마 춘 추



김원경
제12회·노인복지문제 연구가

요즘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려는 풍조가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다.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도 출가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 분가시킨 후 홀가분한 노후생활을 즐기려고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각 가정의 문제로만 방치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1997년 8월 22일 개정 공포되었고, 시행령시행규칙이 1998년 10월 시행되었다.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 휴양촌 건립에 최대한 적합한 곳은 대도시의 인근의 작은 지방도시이다.

시·군 당국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 명실상부한

을 자식에서 물려주고 입주하게 돼 도시 주택난 해결에 도움 △자식의 방문으로 도시와 농촌간 이해 증진 △지역 내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입주자 판매 촉진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 촉진 및 유대 증진 △휴양촌 부대시설 개방 등 다양한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우리는 인생 90을 살 수 있다고 할 만큼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공원 벤치에 앉은 초라한 노인, 무료급식에 줄을 서야 하는 노인, 노인정에서 관내 유지들의 위문이나 받는 노인, 병원에

노인주거 복지시설 건립부터

효의 지방으로 면모를 갖추게 하고 입주자의 중소자금의 투입과 각인각색의 지식을 활용하여 지방발전에 기여하고 본인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자.

오늘과 같은 경제적 발전도 허리띠를 졸라맨 노인층의 피와 땀의 결실임을 정부나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수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노인복지차원의 중소규모의 시설(휴양촌)을 지방의 면 단위에 점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해결책은 지주와 소액투자자, 운영자가 공동 투자하여 추진해야 효과적이다. 건립과 운영에 따르는 제정문제는 입주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건립비 절약을 위하여 군부대 지원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른바 노인세대를 위한 휴양촌이 건립되면 △기존의 주택

서 죽음을 외롭게 기다리는 노인... 등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가 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소리만은 말아야 한다.

진정 자식을 사랑하거든 노후에도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준하여 동창별·종교별·직능별로 복지공동체를 구성하여 현 생활거주지에서 1시간30분~2시간 거리에 있는 도·농 복합도시에 노인유료주택 30~50가구를 건립한다. 영농생활 및 자체 부대시설을 활용하는 즐거운 생활을 한다. 주위의 의료기관, 유동시설, 레저시설을 이용하면 건강하고 품위 있는 화려한 황혼기를 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는 동문에게 지혜를 보태주고자 한다.

밤 실컷 즐기고 한우불고기 즐기고

제18회 75명 밀양서 밤줍기대회... 136만원어치 수확

제18회 동문·가족들이 경남 밀양 다원마을 밤농장에서 밤을 실컷 즐기고 난 후 단합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8회동기회의 올해 최대 이벤트인 밤줍기대회가 지난 9월 23일 밀양 산외면 활성동 다원마을 박인수씨 밤농장에서 열렸다.

동기회가 올해로 세 번째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가족 75명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2대의 버스(김길제 동문 협찬)편으로 부산을 출발한 일행은 2시간 후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밤나무밭으로 들어가 1시간30분 동안 밤줍기대회를 벌였다.

밤나무 아래 들어선 동문·가족들은 일제히 밤을 배낭에 주워넣느라 인정사정도 염치코치도 없었다.

각자 주운 밤은 작게는 10kg에서 많게는 18.5kg이나 됐고 총 680kg의 밤값으로 136만원(kg당



2000원)을 지불했다. 대회가 끝난 뒤 동문-가족들은 점심식사를 겸한 한우 숯불구이 단합회를 즐겼다. 이날 소모된 쇠

고기는 모두 25Kg. 집행부는 가족들에게 참기름 1병과 등산용 깔판을 선물하는 등 356만원의 예산을 들었다.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 크기 · 금액
 - 하단 전체(8.2cm × 25cm) : 400,000원
 - 하단 1/2(8.2cm × 12cm) : 200,000원
 - 하단 1/4(8.2cm × 6cm) : 100,000원
- 내용
 -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 경남중고동창회 (051)245-7551~2

인사말씀과 장의 안내

경남중고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구 서대신동에서 25년 동안 장의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후배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이에 크게 힘입어 이번에 장의차 및 시체 운구용 차량을 다수 보유한 장의행사 대행 전문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불러야 할 급한 일이 발생하면 주·야 불문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으므로 즉시 응하겠습니다. 동문들의 가정에 장의가 발생하면 내 부모 내 형제들 대하듯 온 정성을 쏟겠습니다.

- 첫째: 자택에서 임종했을 경우 유족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즉각 원하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 시켜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시체 운구용 차량 다수 보유).
- 둘째: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그 병원 장의사들의 무례하고 강압적인 요구를 들어줄 필요 없이 사망 즉시 영안실에 내려가지 말고 연락주시면 유족이 원하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 편안한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장의행사가 시작되면 초혼 수시 빈소 설치 소렴 대렴 입관 성복 천구 출상은 물론이고 장지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넷째: 양질의 장의 비품을 숙임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 다섯째: 묘지 알선(공원묘지)·매·화장 신고·택일·이장 개장 후 화장·진단서 발부 등 대행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김광박(14회)
011-552-4903, 051-255-4903

제 5 회

朴奉植=전 서울대 총장. 8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제10기에도 상임위원으로 연임(민족화합분과위원장)

제 6 회

文校淳=10월 3일 모친 별세
鄭世東=10월 3일 모친 별세
鄭兄錫=10월 14일 국제호텔에서 아들 결혼

제 7 회

尹晉憲=동아대 교수. 8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제10기에도 상임위원으로 연임
박재봉=(사무실이전)삼지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1-2 성신프라이언빌딩 5층. 051-255-0002, 051-506-8333, 팩스 051-506-8334

제 8 회

朴祉秉=아들 희준군이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주 메리마운틴대학교 조교수로 강의중
金浩爽=(자택이사)서울 서초구 잠원동 66-3 동아아파트 103동 504호. 02-532-2333
洪起城=(자택이사)경기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산44 동아솔레시티 131동 1701호. 031-265-1188
金太鏞=호 동산. (전화번호변경)02-6245-8056
曹錫鉉=(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154동 1203호

제 9 회

梁一模=(자택이사)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500 화승 삼성아파트 15동 2303호. 051-807-2324, 016-562-2396
金永喆=(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1 거제1차현대홈타운 107동 503호. 051-504-1727
李榮龜=(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1 거제1차현대홈타운 109동 2703호. 051-949-7481, 8월 31일 신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직 근무를 끝으로 정년 퇴임
尹鍾斗=(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온천동 148-44 푸른장여관. 051-557-4849
李大圭=(자택이사)부산 영도구 동삼3동 1123 주공아파트 305동 304호. 051-404-9430
黃永善=(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808호. 051-506-7227
朴大鉉=6월 23일 코모도호텔에서 3남 봉찬군 결혼
曹二鏞=9월 16일 롯데호텔 3층에서 아들 영준군 결혼
林根文=9월 22일 서울 전자랜드 예식장에서 딸 혜선양 결혼
徐豪成=8월 31일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교수직을 끝으로 40여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정년 퇴임식을 갖다
李丁佑=9월 13일 기장병원에 지병으로 입원 중 별세
鄭一孝=(자택이사)서울 노원구 월계3동 18 그랑빌 한화아파트 105동 501호. 02-949-7027

元明熙=(자택이사)경기 김포시 감정동 685 푸른마을 신안빌라 101동 101호. 031-982-3737
柳永植=(자택이사)경기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15 (15/1) 한성아파트 904동 202호. 031-923-1192
李先浩=(자택전화변경)031-907-7320
韓得秋=9월 19일 부친 별세
河祥培=9월 19일 심장마비로 별세
鄭民柱=9월 21일 LG강남타워 아모라스홀에서 딸 혜선양 결혼
崔海洙=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과의 출강

제 10 회

尹奉燾=(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일아파트 109동 1103호. 051-747-0456
全秉稷=(자택이사)부산 금정구 남산동 105-2 (51/1) 성원빌라 402호. 051-513-6615
尹潤赫=호 장산(長山).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98 LG아파트 107동 401호. 051-702-4575. 장산썩뜸 홈페이지 http://myhome.naver.com/ssookdum
尹相鍾=화신약국장. 8월 15일 지병으로 별세
金在奇=농장경영. 9월 18일 지병으로 별세
尹才諱=(팩스번호변경)02-2269-3183
朴仁圭=(자택이사)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15 덕소강변 홈타운 105동 401호. 031-521-9320
鄭鎮東=(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리 산17 현대성우1차아파트 294동 803호. 031-272-2346
朴嘉洙=호 오리(吾理). 서울 마포구 도화1동 현대아파트 106동 1104호. 02-715-1360
李玆泰=9월 16일 지병의 합병증 뇌일혈로 별세

제 11 회

李成泰=(자택이사)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367-106 용궁빌라 A동 401호. 051-893-8009
吳根鍾=8월 24일 지병으로 별세
朴炳祚=(자택이사)부산 북구 화명동 232 수정마을아파트 116동 1405호. 051-364-0729
盧英一=8월 25일 모친 별세
金原炯=10월 6일 토현기원 개업. 부산 연제구 연산9동 57-30 정우빌딩 5층. 051-761-0300
張英權=보현장의향초 상무. 부산 남구 문현3동 447. 051-637-5024
鄭雲杓=10월 14일 궁전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제 12 회

權延相=삼덕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세헌빌딩 4층. 051-506-7001
金光一=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성신프라이언 902호. 051-507-0111
金喆基=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성신프라이언 701호. 051-947-7001
趙哲元=법무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정림빌딩 206호. 051-507-6066



權奉憲=9월 1일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소 개소. 02-533-3370
權 翼=9월 15일 차남 결혼
金達洙=대전대학교 경영학 박사. 042-280-2330
金斗植=9월 16일 장녀 결혼
金相熙=(주)석정 크린텍 회장에 취임. 051-521-3436
金聖贊=경남교 교장으로 봉직하다 8월 18일 정년 퇴임식 가짐. 수고 많았습니다
金英坤=(자택이사)경남 밀양시 삼문동 유한강변아파트 101동 901호. 055-355-3160
金龍瑄=기별야구대회 연합팀 주장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安龍得=9월 1일 서울에서 차남 결혼
李鍾文=8월 21일 모친 부산 본가에서 별세
李玄達=(자택이사)부산 금정구 장전2동 505 벽산파라다이스 2동 307호
趙弘濟=10월 27일 미국 산호세에서 장남 결혼
車敏道=9월 25일 공인회계사 사무소 성남시 분당에 개소. 031-708-6411
黃良男=8월 18일 부산 본가에서 모친 별세

제 13 회

金義煥=7월 16일 모친 별세
朴斗萬=9월 2일 하모니웨딩타운에서 장남 성수군 결혼
鄭昌炫=9월 15일 서울 방배동성당에서 차녀 주혜양 결혼
宋文一=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3 세헌빌딩 4층. 051-506-8700~2, 팩스 051-506-8703
崔繁英=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507호. 051-503-9283~4, 팩스 051-503-9285
韓炳祚=본부동창회 부회장. 법무사 한병조 사무소.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86-2 만해포럼빌딩 104호. 051-507-2300~1, 팩스 051-507-2302
金信夫=(자택이사)부산 연제구 거제1동 거제1차현대홈타운 103동 702호

제 14 회

南廷判=자유총연맹 사무총장. 8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제10기에도 상임위원으로 연임
朴炳善=신흥 올테크(주) 회장. 부산 사상구 모라동 726-2. 051-301-4252
李康石=8월 20일 모친 별세
鄭時榮=법무법인 삼덕종합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3 세헌빌딩 4층. 051-506-8700~2
鄭鉉求=부영약국 대표 (약국이전)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내 051-508-1434 (자택이사)부산 금정구 구서2동 신동아아파트 101동 2509호. 051-514-3929
李秀男=(자택이사)부산 금정구 구서2동 201-7 진흥목화아파트 602호. 051-514-7551
張炳出=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부산 연제구 연산5동 1000. 051-851-7500(내선 501) 직통 051-851-7525

제 15 회

李幸男=부산 초장중학교 교감. 051-242-1412, 051-242-9171
金祥正=(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우2동 1008-7 동부올림픽타운 118동 601호
李勝男=10월 27일 금정구청에서 장남 훈택군 결혼
金昇一=(신장개업)죽마고우. 부산 금정구 부곡3동 65-97. 051-516-1519, 051-552-8679
姜永勳=(사무실이전)(주)로알스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29-4 남공빌라 303호. 051-464-9890
金耕一=(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1동 176-30 LG메트로시티 128동 703호. 051-622-9932
裴鳳學=9월 19일 대구 크리스탈 관광호텔 예식부 별관 2층 무지개홀에서 장남 진호군 결혼

제 16 회

金 憲=9월 6~20일 부산 서면 부산공간화랑에서 부친 고 김종식 화백 회고전 개최
盧祥鉉=청십자의원 원장.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114동 702호. 051-755-5975
金政鏞=(주)경국 대표이사.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3차 305동 1802호
趙雲一=경진감리공단이사. 9월 27일 모친 별세
崔良珠=(자택이사)부산 사하구 괴정1동 자유아파트 101동 1045호. 051-203-0498
鄭太和=10월 4일 간암으로 별세
孫松邦=동창찬의원장. 10월 13일 서대신동성당에서 차남 영민군 결혼
金仁國=등지 대표. 10월 14일 부산역 통운빌딩 15층 통운웨딩홀에서 장녀 소라양 결혼
安國正=엘리트 어패럴 상사 대표. 10월 14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 목화예식장 2층에서 장녀 현주양 결혼

제 18 회

林永燮=대림유통 대표. 8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제10기에도 지역협의회장(부산 사하구협의회장)으로 연임
李大運=호수약국 개업. 부산 남구 대연1동. 051-621-5531
朴實煥=삼원광고 개업(간판업). 051-625-9543
金永一=학장동 동인 노인병원장. 051-601-7600
金東會=상지엔지니어링 대표. 9

월 20일 부산시에서 시행한 2001년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에서 김동문이 설계한 작품(금정세무서 설계)이 대상으로 선정. 이 작품은 2001 부산 국제건축 문화제에 전시. 051-247-0208
柳鍾文=부경대 교수. 017-870-3486
金東善=(주)광국실업 부사장. 055-343-1177~9
姜大圓=부산세관 진주출장소 소장. 051-645-7500
金光浩=(주)MSC 이사. 055-389-1001
金大憲=신한방사선과 원장. 051-808-0400
金思權=부산 경찰청 방법과장
金相奎=동남상사 대표. 051-324-6161
金用大=김용대정형외과 원장. 051-622-0024
夫昌九=중앙의원 원장. 051-332-9717
徐且守=부경대 도장과 교수. 051-620-1563
李相敏=허쉬파피 대표. 051-247-1032
李成一=동기회장. 삼보산업 전무. 055-541-0130
李炯學=세양유화 대표. 051-782-0092
陳湘永=남포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소장. 051-243-1696
河榮一=경남고등학교 교무부장. 051-248-2181

제 19 회

金榮百=6월 2일 딸 결혼
朴載祐=9월 8일 딸 결혼
安正模=5월 26일 딸 결혼
李根植=5월 19일 딸 결혼
全泰俊=7월 7일 딸 결혼

제 21 회

金洪珍=10월 26일 문화회관에서 친구들의 가을음악회 연주. 동의대 음대교수. 017-552-6782
朴光周=일본 동경대 교환교수 마치고 귀국. 부산대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 051-510-2104
朴利潤=한국주철관공업(주) 전무이사. 051-291-5481, 011-875-3401
吳巨敦=10월 5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에 취임. 051-808-2010, 7월 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장녀 결혼
柳星五=10월 20일 장녀 결혼.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유로도로부장. 051-527-3229, 011-557-9751
張 浩=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3 세헌빌딩 601호. 051-951-0202, 011-9311-4815
鄭翼株=10월 15일 부인 별세. (주)일산 부사장. 051-301-0303, 019-550-8308
崔敬容=11월 4일 영도 신선성당에서 카톨릭신부 서품25주년 기념식. 051-418-8302
崔金鳩=광신무역(주) 대표이사 (사무실이전)부산 중구 중앙동2가 24-3. 051-246-2541, 017-574-2444
韓光洙=호성화학(주) 대표이사. 051-311-9661. (자택 전화변경)051-612-8891, 011-578-8891

6면에서 계속

- 黃英實=경상대학교 의과대학장 (진주) 055-762-4742, 011-9550-8062
- 姜淳久=부산신항만(주) 서울사무소장, 02-598-2405
- 강동근=서울 양천구 목3동 318-245 목동영광교회 내
- 姜和中=한국은행 국장진급, 국방대학원 교육중
- 姜源泰=경기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155 LG빌리지 1차 115동 504호, 031-265-4461
- 姜昌洙=대경명란(주) 대표, 서울사무소 개설, 02-593-6163
- 高允得=유영인터내셔널, 02-678-3302
- 具永昭=글로벌미디어 대표, 02-3141-5561, 경기 파주시 조리면 한라 디발디아파트 121동 1101호, 031-946-7334
- 金尙夏=한빛은행 본점 기업금융 본부장, 02-2002-5100
- 金星銖=(병원이전)대전 중구 문화동 1-129 서울 메디칼 빌리지 내, 042-252-4600
- 金純一=5월 12일 부친 별세
- 金完一=(사무실이전)(주)화인텍 대표, 031-997-0151~2
- 金允哲=근로복지공단 총무이사, 02-6700-308
- 金峻弘=(주)AERO TECH 대표, 02-571-9502
- 金熙建=동부생명보험(주) 대리점, 02-2285-1102
- 金漢星=5월 2일 모친 별세
- 金鎬寅=(주)우산전자 상무, 054-931-5561
- 朴永錫=KBS 뉴미디어 국장으로 진급, 02-781-2405
- 朴載福=(주)진주햄 대표 (사무실이전)서울 강남구 대치4동 905-19 시상빌딩 3층, 02-562-3091
- 朴鍾應=(주)데이콤 부사장, 0505-888-1080
- 朴賢秀=(자택이사)서울 구로구 구로5동 1267 태영아파트 113동 1502호, 02-868-3950
- 裴宗德=현대자동차 아, 중동지역 본부장 해외 근무중
- 裴鍾浩=현대 모비스(주) 이사, 02-2167-5025, 여의도사무실 이전
- 徐炳文=한국문화 콘텐츠 진흥원 원장, 02-2166-2000
- 成潤洙=열린 학습 전문위원, 02-575-0286, 양재동 사무실 이전
- 沈亨輔=한국은행 안동분실장, 054-856-3651
- 安映鎬=(주)AERO TECH 대표, 02-571-9502
- 吳天錫=(자택이사)서울 관악구 신림9동 1703-1 건영3차아파트 4동 1501호, 02-889-1121
- 李淳煥=잉글리쉬 퓌 대표, 02-556-9221
- 李承彥=새길엔지니어링(주) 부사장, 02-2203-3060
- 李承玆=9월 7일 LG강남타워에서 장남 결혼
- 李英勳=9월 4일 강남 삼성의료원 부친 별세
- 李永哲=대우자동차 리비아 트리폴리 지사장
- 李宗相=서울시청 건설안전관리 본부 시설국장 진급, 02-778-0581, 서울 강동구 성내2동 384-5448-3847
- 李長春=(자택이사)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34-1 삼성아파트 111동 1504호
- 李太浩=(자택이사)서울 강서구

- 화곡8동 410-75
- 李鎬洙=대우건설 이사, 02-2288-3046
- 張庸圭=태영개발(주) 전무, 02-595-3083
- 鄭驥上=하나로 종합금융 감사, 02-3466-1804
- 鄭永煥=6월 21일 모친 별세 캐나다 이민중, 414, TWIN BROOKS, CRESCENT EDMONTON CANADA T6J6V2, (사무실)780-435-0726 (자택)780-430-5325
- 鄭源泰=아프리카 케냐 몸바사에서 수산업 개업, 회사명 SEA ANGEL Fisheries COMPANY 8월 출국
- 曹秉孝=6월 7일 모친 별세
- 池聖煥=7월 10일 싱글빙글 복집 개업, 031-387-6979, 평촌 귀인중학교 정문 앞
- 陳炳化=EBRD 영국 파견 근무중
- 曹喜夫=4월 4일 부친 별세
- 車東玟=한국전력공사 뉴욕지사 KEDO 사무실장, 212-973-9652
- 崔銅完=(자택이사)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장미3차아파트 2동 602호
- 崔七燮=7월 6일 목동영광교회에서 결혼, 만두집 개업(신촌), 02-334-4754, (자택)서울 마포구 당인동 15-50
- 崔胎植=울트라 건설(주) 부사장, 02-3707-7000
- 河炳熙=대창기연(주), 031-458-0222, (자택이사)경기 의왕시 오전동 104 매화아파트 101동 111호, 031-453-9230
- 洪淳吉=(사무실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3층, 02-6333-6292

제 23 회

- 李尙秀=모친 별세
- 金榮華=모친 별세
- 姜判淳=모친 별세
- 許 渡=영도구청 총무국장, 051-419-4091
- 尹淳鉉=부산대학교 학생처장, 051-510-1107
- 金宗圭=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사무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9-4 협성법조빌딩 2층, 051-949-2001
- 河鍾基=하중기 법무사 사무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136-2, 051-501-7422
- 李仁根=패션몰 미라지오 대표 (구 새부산예식장) 051-245-1001
- 金益坤=해동병원 의무원장, 정형외과 과장, 051-412-6161~8
- 金泰容=부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51-626-6550 (자택)부산 수영구 수영동 현대아파트 110동 1002호
- 朴在浩=동의공업대학 전자과 교수, 051-860-3195
- 白昌英=협성해운(주) 상무이사, 051-463-1451~6
- 徐榮秀=송도 임페리얼프라자빌딩 대표, 051-241-3263
- 吳允安=효성종합건설(주) 대표 이사, 051-517-7734
- 鄭琪泰=빅토리아해운(주) 이사, 011-872-9555
- 鄭相建=정상건소아과의원 원장, 051-202-1363
- 李容源=동양화재(주) 정심대리점 대표, 051-556-7310



제 24 회

- 權相徵=유니언건설 대표 (사무실이전)부산 해운대구 중1동 크리스트O/T 1409호, 051-747-9225
- 金青天=10월 14일 허심청 2층에 메탈드홀에서 장녀 결혼
- 朴敬在=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세종빌딩 1001호, 051-507-4400~1
- 黃斗敏=(사무실이전)수영컨벤션센터 B1호, 051-740-7797
- 김기영=대연고 교사 (자택이사) 부산 남구 용호1동 일신크로바 아파트 101동 807호, 051-627-8938
- 金秀謙=AGENT 대표 (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온천동 7-7 럭키아파트 14동 108호, 051-554-5077
- 白山欽=소양해운(주) 소장, (자택이사)부산 남구 대연5동 1281-53 신화빌라 2동 301호, 051-463-0611
- 朴俊哲=오대산업 상무, (자택)부산 북구 금곡동 53-1 주공아파트 105동 1215호, 051-305-2924
- 徐鍾洙=연세대 전과연구소 소장, 8월 24일 모친 별세, 02-361-2878
- 秋憲武=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관리부장으로 전보, 051-465-2301
- 韓承澈=법무사 (사무실이전)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0-3 브라더빌딩 302호, 051-816-6611

제 25 회

- 文在寅=(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406호, 051-951-7003
- 文錫球=(자택이사)부산 서구 용동2가 87-5 신한빌라 102호, 051-246-9711
- 李水榮=미래치과 (병원이전)부산 동래구 명륜2동 533-229, 051-505-3332
- 趙 翼=조의피부과의원 (병원이전)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291-5, 054-282-8865
- 高明植=영광교회 목사, 부산 수영구 남천2동 148-84, 051-623-1310

제 26 회

- 李光泰=경남대학교 건축학부, 055-249-2676, (자택)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33-7 화신빌라 A동 103호, 011-476-5869
- 金賢壽=웅진코웨이(주)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10-6 대한생명빌딩 5층, 016-559-3899
- 朴鎬碩=법무법인 신성, 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2-1 세종빌딩 3, 4층, 051-949-5000, 팩스 051-949-5010, 홈페이지 www.sslawfirm.co.kr

- 朴權秉=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 법조타운 7층, 051-463-7755, 051-242-9908
- 張元鎬=변호사,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309호, 051-505-5212
- 全海龍=교통사고로 박상호의원 에 입원중
- 趙辰鉉=9월 26일 별세
- 金浩彥=미송아구점 개업, 송도해수욕장 중간길 압남동사무소 맞은편, 051-246-4722
- 李承茂=부산시 교육청 부교육감, 051-866-3102
- 吳永杓=경상고등학교 교사, 051-403-8413
- 朴相昊=도원의원 개원(정형외과), 부산 사하구 다대4지구 입구 육교 앞, 051-266-8020
- 朴義英=대양TRADING 상무이사, 부산 진구청 1409호, 051-817-1571~3, (자택)부산 강서구 명지동 2350 (19/1), 051-271-0519
- 曹海鎬=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장 취임, 051-632-1282
- 俞鳳植=(주)유니슨산업 지사장 취임, 부산 금정구 남산동 118-8 상화빌딩 4층, 051-583-1250
- 金允奎=유니온치과병원 원장 취임, 051-257-4785
- 李光泰=7월 18일 부친 별세
- 金性煥=7월 30일 부친 별세
- 鄭巨敦=8월 8일 부친 별세
- 朴源尙=8월 8일 부친 별세
- 崔昌執=8월 15일 모친 별세

제 27 회

- 金泰佑=본부동창회 감사, 법무법인 국제 대표 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공증실 2층, 051-463-7755, 051-242-9908, 팩스 051-463-7807~8, 051-242-9902, 홈페이지 www.kukjelaw.co.kr

제 28 회

- 李元哲=법무법인 국제, 대표 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공증실 2층, 051-463-7755, 051-242-9908, 팩스 051-463-7807~8, 051-242-9902, 홈페이지 www.kukjelaw.co.kr

제 30 회

- 崔巨勳=본부동창회 부회장, 법무법인 천지 변호사, (사무실이전)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1-1 로제스티빌딩 8층, 051-507-7003, 팩스 051-507-7022

제 32 회

- 金源根=동양화재 김해영업소 소장 전근, 011-878-2495
- 李鍾輝=동양화재 대구지점 지점장 전근, 011-574-7621
- 정용운=쌍둥이 득남 득녀, 011-564-7440
- 金景三=연산동 소재, 약국 개업, 016-566-1893
- 金大植=동서대학교 일어일문부 교수 학생처장 발령, 011-838-7770
- 문창진=동래 온천장 소재 회화학원 개업, 017-554-0033

- 白榮泰=(주)만송산업 대표, 011-837-6873
- 辛昇學=(주)관우건설 진주현장 소장, 011-868-3423
- 李宗來=(주)ING생명보험 지점장, 011-499-5499
- 鄭龍洙=PSB부산방송국 보도국 카메라 기사 차장, 018-789-9360
- 李煥鎔=토곡중학교 교사 발령, 011-588-8943
- 全哲弘=(주)리빙텍 지사장, 016-552-1292
- 韓文進=(주)네비케이트해운 전무 승진, 011-589-1101

제 37 회

- 金正洙=동기회 회장, 미래산업 대표, 051-962-2114~5
- 朴德鉉=국제활어도매센타 대표, 마산시 회원구, 055-231-1313
- 崔正煥=한주통상 대표, 051-973-4193~4
- 崔致坤=삼성가스 대표, 055-329-1861, 055-329-1970
- 申宇鎬=일광형제뉴시 대표, 051-721-4687
- 崔成道=한국틸리(주) 부산영업소 소장, 051-556-2310
- 崔熙年=아주항공여행사 대연지점 지점장, 051-610-1203
- 李淳燮=FLEX 대표이사, 051-963-1234
- 孫允憲=극룡전산 대표, 051-247-0491
- 崔元悟=부산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 051-519-0409
- 金元律=오죽향 모라점, 051-647-5292
- 朴鍾敏=키즈클럽 남천센터 원장, 051-628-0365
- 吳正權=21세기 방사선과의원 원장, 051-205-0120
- 李柱弘=한가족이비인후과의원 원장, 051-600-3887
- 表聖洙=돈키호테 비디오팩화점 대표, 051-255-7788
- 金永坤=김영근내과의원 원장, 051-263-0232~3
- 姜龍河=서강유통 대표, 055-372-5036
- 柳浩燮=구포 하나 정형·신경외과·정형외과 원장, 051-3366-119
- 許 杰=허걸비뇨기과·피부과 원장, 051-416-8009
- 崔奎喆=용마자동차매매상사 대표, 051-294-0055
- 成昌洙=성창수치과의원 원장, 051-248-8918
- 張棟漢=장동한외과의원 원장, 051-636-5667
- 權奇元=한독치과의원 원장, 051-861-8497
- 崔起榮=카톨릭성형외과의원 원장, 051-865-0028
- 孔玟植=한사랑내과의원 원장, 051-636-3802
- 金東郁=성모제통의원 원장, 051-781-2878
- 崔康柱=백병원 흉부외과 과장, 051-890-6337
- 金志雄=서인한의원 원장, 051-208-4567

제 39 회

- 조용성=인텔리전트슬루션즈 대표

제 47 회

- 김형석=(주)LG화학 재경부분 채권관리팀

뜨거운 응원전 속 묘기백출

제33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제32회 최다참가상 1위

대망의 동창회장기 쟁탈 제33회 기별대항 야구대회(본부동창회 주최·2001부산시리즈)가 지난 10월 7일 입장식을 갖고 열전 4주간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입장식에서 조대제 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은 대회사를 통해 "뜨거운 응원전과 실수하는 묘기와 파인 플레이가 한데 어울려 재미있는 대회가 되고, 이 같은 저력이 동창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활력소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득호 사무국장(11회)의 사회로 진행된 입장식은 동문·가족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국민의례·교가제창·우승기 반환·회장 대회사·모교 교장(김향운·13회) 환영사·선수대표 선서(김재선·33회) 등으로 이어졌다.

입장식 최다참가상은 1위 제32회·2위 제31회·3위 제14회·4위 제8회가 각각 수상했다.

장타상 김용관(12회) 등 15명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장타대회와 연합A-B팀 친선경기가 벌어졌다. 장타대회에서 김용관(12회) 김영식(14회) 김홍국(18회) 등 15명의 동문이 장타상을 받았다.

연합A팀 낙승 B팀을 10-5 제압

지난 10월 7일 오전 11시20분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동창회장기 쟁탈 제33회 기별대항야구대회 입장식에 이어 번외경기로 치러진 연합A-B팀(5회전) 게임에서 타격이 뛰어난 A팀이 B팀을 10-5로 이겼다.

연합A팀은 강종국 투수(16회)의 강속구와 변화구의 위력에 주눅이 든 B팀을 6안타 5타점으로 제압했다.

연합A팀은 공한국 선수(13회)의

3루타 등으로 1~3회 각 1점과 4회 대거 7점을 뽑아 승리를 굳혔다. 연합B팀은 장상근 투수(12회)의 호투와 김용관·이창대 선수(이상 12회)의 3루타 등이 작렬했으나 후속 타봉이 없어 다블스코어로 무릎을 꿇었다.

이날 경기에서 개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수선수상=강귀동(13회) △우수투수상=허 섭(10회) △수훈상=김용관(12회) △타격상=최충락(14회) △감투상=강종국(16회) △인기상=이창대(12회).



지난 10월7일 모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33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에서 조대제 본부회장(오른쪽)이 지난해 우승팀인 제33회 대표로부터 우승기를 반환받고 있다.



16강전의 제27회 공격 모습. 제27회는 제32회를 물리치고 8강전에 진출했다.

세대교체 '물결' 거세게 일어 청년부엔 예측불허 폭발력이

제33회 대회 전력평가

올해 제33회 기별야구대회에서는 분출하는 젊음의 기량 앞에는 작전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이변을 낳고 있다.

왕년의 우승팀은 물론 '막강'을 자랑하던 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량의 쇠잔함을 보여 '영

광'을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이른바 '세대교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청년부에서만 예외가 존재하고 있다. 같은 젊은 세대인 만큼 우열을 가리기에 아직 이른 '힘의 야구'를 창출하고 있어 다행으로 여겨진다.

12월 중순 '용마의 밤 축제'

대구·경북지역동창회 월례회 열어 사업 확정

대구·경북지역동창회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7시 대구 삼덕교차로 앞 '김근태한방요리' 연회실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조규중 회장(15회)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40여 명이 참석, 가족동반 체육대회와 송년축제 등 조직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사회 신수열 총무·30회).

'참여하는 동창회, 발전하는 동창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동문 유대와 가족 친교를 강화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동창회는 송년축제인 '2001 용마의 밤' 행사를 오는 12월 중순으로 내정했다.

두 고인 자녀에 각 100만원 제24회, 올해 장학금 전달식

“ 아버지는 안 계셔도 아버지 친구분들의 사랑은 넘쳐요 ”

매년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제24회동기회는 올해 수혜자로 유명을 달리한 두 동문의 자녀를 선정했다.

박홍규 회장은 지난 10월 13일 동기회사무실에서 동문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2001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고 우승호·유영식 동문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격려했다.

실천하면 오래 사는 '건강10계명'

요즘 사람들은 시절이 좋아서인지 장수(長壽)에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자기질제'에 등한시하면 '장수'는 희망사항으로 끝날 것이다.

'건강 10계명(Healthy Life Ten Points)'을 통한 오래 사는 지혜를 소개한다.

①소육다채(少肉多菜-Less meat, more vegetables) :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는다.

②소염다초(少鹽多醋-Less salt, more vinegar) : 소금 적게 먹고 양조식초를 많이 먹는다.

③소당다과(少糖多果-Less sugar, more fruits) : 설탕을 줄이고 과일을 많이 먹는다.

④소식다작(少食多嚼-Less

food, more chew) : 음식을 적게 먹고 많이 씹는다.

⑤소번다면(少煩多眠-Less worry, more sleep) : 근심을 적게 하고 잠을 많이 잔다.

⑥소노다소(少怒多笑-Less anger, more smile) : 화를 적게 내고 많이 웃는다.

⑦소의다욕(少衣多浴-Less clothes, more bath) : 의복을 적게 입고 목욕을 자주 한다.

⑧소언다행(少言多行-Less speak, more do) :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한다.

⑨소욕다시(少慾多施-Less desire, more service) : 욕심을 적게 내고 많은 봉사를 한다.

⑩소차다보(少車多步-Less ride, more walk) : 차를 적게 타고 많이 걷는다.

책임임대보장 증서발급!

전영캐스빌플러스

초저금리시대의 투자전략!

화정최대상권 로데오거리가 바로 앞, 은행금리 4배이상의 임대사업을 하자!

동문에게는 5%의 특별할인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주) K&P 대표이사 김규성(30회)

일산 화정역 로데오거리 초입, 수익형 오피스텔 전영캐스빌플러스!

일산 특급 상권 - 화정역 로데오거리!

- 일산역권 전영 캐스빌은 일산 최대 규모의 중심 상권
- 롯데마트, 롯데월드, (001)가 가까이 쇼핑을 할 수 있다.
- 일산역 특급 상권으로 높은 임대수익과 임대수요가 기대되는 특급 투자 지역

전영캐스빌플러스만의 프리미엄

- ▶ 3호선 화정역이 광범위한 교통망 제공!
- ▶ 월급이 있는 오피스텔!
- ▶ 오피스텔에 용이하다!
- ▶ 18~33평 현대의 중상형 평형!
- ▶ 일산보다 서울 진입이 빠른 교통요충지!
- ▶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 ▶ 아무것도 필요 없는 주거시설 '편안 오실라'
- ▶ 입주자를 위한 편의안주식공간!

모텔하우스 개관중!
*지하철 3호선 화정역1번 출구

16/17/19/21/22/25 평형 · 총 10Type 242세대

분/양/문의 031)938-4513

건본주택 찾아오시는 길

책임사

주식전영

www.kunyoung21.co.kr

분양대금 관리은행

주택은행

시행사

(주)케이엔피